

민선 8기 광산구, 민생현장서 소통

‘찾아가는 구청장실’ 1호 결재 박병규 청장, 주민 깜짝 만남도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다양한 민생현장을 살피고, 시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듣는 경청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박병규 청장은 지난 1일 취임 첫 결재로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에 서명했다. 경청과 소통을 민선8기 모든 광산구청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의다.

특정한 시기 격식을 갖춰 진행돼 온 기존 방식을 벗어나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 주민 생활 밀착 현장 등 어디든 직접 찾아가 시민의 목소리를 들겠다는 것이다.

박 청장은 취임 첫날부터 이러한 현장소통 의지를 행동으로 보였다. 지난 1일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신가동 재개발 현장, 고려인마을을 차례로 방문한 박 청장은 같은날 오후에는 수완동 통장단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지난 8일에도 공식일정 중 지평동 메타세쿼이아 길에서 갈등민원인 발생했다는 보고를 접하고, 바로 현장을 찾았다.

박 청장은 이날 현장을 살피고, 이해당사자와 대화를 나누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서두를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광산구도 시기와 현안성을 고려해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의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생활불편, 집단민원 등이 발생한 장소, 현안과 숙원 사업 현장 등 상황과 특



박병규 광산구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8일 갈등민원인 발생한 지평동 메타세쿼이아 길을 찾아 현장 상황을 살피고 있다.

성에 따라 ▲소통 구청장실 ▲공감 구청장실 ▲동행 구청장실로 구분해 주 2회 이상 운영하는 것이 기본 골자다.

소통 구청장실은 시민 삶과 밀접한 민생을 중심으로 시간, 장소, 대상을 불문하고, 주요 거점을 찾는 ‘게릴라 만남’, 현장 체험 등의 형식이다. 공감 구청장실은 지역이슈로 주민소통이 필요한 곳이 대상이다. 온·오프라인 장구를 통해 접수된 갈등민원과 속의·공론화가 필요한 복합 안건을 선정해 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한 ‘타운홀 미팅’, 정책토론회 등을 연계해 문제 해결 방안까지 모색한다.

또 생활불편 사항, 복합민원, 지역 숙원이나 공약 등과 관련한 지역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행 구청장실을 운영한다.

박 청장은 14일 오후에는 평동역에서 첫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 청장은 이날 형식이나 주제를 정하지 않고 평동역을 찾아 인근을 지나는 산단 노동자, 주민들과 ‘게릴라 현장소통’ 방식으로 민선8기 광산구에 바라는 점 등을 듣는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다음 날에는 첨단2동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상권 활성화, 마을 의제사업, 주민자치 활동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박 구청장은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소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시민의 참여와 의사를 존중하고, 구정에 반영하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저부터 바로 뛰고 듣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예술인 창작 실현 ‘배동신 어등미술제’

9월 19일~21일 작품 접수

광주 광산구는 “지역을 대표하는 수채화의 거장인 배동신 화백을 기념하고 미술인재 발굴과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제32회 배동신 어등미술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는 회화, 서예, 문인화 등 총 세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외국인을 포함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출품 원서는 광산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난 11일부터 2개월간 공모 기간을 거쳐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작품을 접수받는다.

회화는 이메일(diggil@korea.kr)로, 서예·문인화는 광산생활문화센터(광주시 광산구 상무대로 265, 2층)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광산구는 오는 10월 수상작을 선정하고, 11월에는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에서 시상식과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문별 대상 수상자(3명)에게는 시상금 300만 원을 수여한다.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문화예술과(062-960-8289)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로 32회를 맞는 ‘배동신 어등미술제’는 신진 예술인의 등용문 역할을 하며 지역 미술 문화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수완동, 마을복지+건강계획 수립단 15명에 위촉장



광산구 수완동은 “최근 마을복지+건강계획 수립단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완동 마을복지+건강계획 수립단’은 수완동 지사협, 주민자치회, 통장단, 첨단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사진>

앞으로 주민이 중심이 돼 마을의 욕구와 자원을 조사하고 마을의제를 발굴·선정해 수완동 복

지건강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근호 수완동장은 “마을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아보고 해결해나간다면 마을공동체는 더 단단해질 것”이라며 “사람을 품는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행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환경직 근로자 집단농성 잡음

구의회 “공단측 관리책임”...공단내 6개 노조간 힘겨루기 의견도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환경직 근로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농성에 나선 것을 놓고 광산구와 구의회 등이 문제해결 당사자인 공단 관리자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서 향후 해결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환경직 근로자 50여명은 지난 7일부터 구청 앞에서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집단농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집단 농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골짜기만은 않다.

환경직 근로자들의 주장도 일부 공감하지만, 이번 집단농성이 이제 갖 출범한 민선 8기 구청장을 상대로 공단내 문제해결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부정적인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광산구를 비롯한 새롭게 구성된 광산구의회의 내부에서 공단측의 노조 관리에 대한 각종 문제점과 공단 이사장의 책임론, 그리고 관련 조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경영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산구의회의 의장단은 지난 12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계속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환경직 근로자의 구청 앞 집단 농성에 대한 입장을 일부 거론하기도 했다.

김태완 광산구의회의 의장은 “환경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6300만원인데 별도 성과금을 지급할 경우 연봉이 7200만원으로 인상돼 매년 구민의 혈세가 16억원이나 추가 소요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현재 환경직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가 민간 위탁시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자칫 귀족 노동자로 비춰질수 있다”며 이번 집단 농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조영임 광산구의회 운영위원장도 “근본적으로 공단조직 구성에 문제가 있고, 불박이 본부장이 존재하는 등 조직 효율성이 뒤떨어진다”면서 “조직 구성의 쇄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산구 내부에서도 새로 취임한 박병규 구청장이 노조위원장 출신인 것을 감안해 공단측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합대로 삼아 집단 농성하는 것

자체가 의도적 농성이 아니냐는 등의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해 박병규 구청장도 “공단내에 6개 노조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경영진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공단 내부의 노조관리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경영진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실제 이번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환경직 근로자들의 구청 앞 집단 농성은 공단 내부에 난립한 노조들의 세력확장을 노린 정략적 노동운동이라는 주장도 흘러나온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한 근로자는 “노조 집행부가 강성 이미지를 통해 과반 조합원을 확보하고, 대표 노조의 지위를 갖기 위한 정략적 차원도 없진 않은 것 같다”며 난립된 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공단측은 “자생적으로 구성된 노조를 놓고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그동안 개별노조 교섭 등을 통해 일관한 공단 운영을 도운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선언...학대 예방 교육



광주 광산구는 지난 11일 수완문화체육센터에서 광산구 소재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30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선언행사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서는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해 어린이집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고민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내일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모든 보육 교직원분들이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광산구도 아이를 마음 편히 맡기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돈돈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